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9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청명한 가을하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봄이 어찌나 좋은지요, 가을햇살 받으며 점점 투명해지는 고추처럼 영혼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하늘도 맑아져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드리워지는 염려와 근심의 먼지들, 불안과 두려움의 먹구름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 가난한 이들의 부담은 늘어만 가는데 부자들의 책임은 줄어들고 있는 이 사회를 돌아봐주십시오. '집에 집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여 홀로 살려는 이'들을 바르게 고쳐주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권력을 통하여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이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인도자

♠ 교 독 문 9. 시편15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하진채 학생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410(통468).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다함께

성경봉독 I. 마 25:14-30 염철민 학생

..... II. 요일 4:7-12 권 순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그가 가진 다섯, 내가 가진 하나 ... 손성현전도사

..... II. 사랑의 완성 김기석 목 사

거둠기도 다함께

찬 송 503(통373).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다함께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성공을 인생의 완성이로 알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눈감고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값진 의무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 / 김기석 목사	다니엘서 공부 : 이성운 전도사
기도 : 하정석 집사	기도 : 윤수진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조재훈 선생 김재흥 목사	박제림 학생 유경순 권사

10월	영접위원	조병무 하정석 정한구 최숙화 박홍재 최영혜
	헌금위원	윤석철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공동체

수년 전, 내 친구는 강도의 습격을 당했다. 그는 밤에 회당에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그를 공격했다. 그를 때리고 땅에 내동댕이쳤다. 그는 간신히 집까지 돌아왔지만 육신뿐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입었다.

그 후 흔치 않은, 다소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가 그 다음날 아침 회당 모임에 빠지자 사람들이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도움의 손길이 줄을 이었다.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안부를 묻기도 하였다. 그 일은 그가 회복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 며칠 후 경찰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소만, 나는 나를 공격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구려. 그들은 나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음을 알게 해주었소.’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다. 공동체는 우리가 다른 이를 위해 존재하는 곳, 다른 이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공동체는 행정적으로 엮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을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과 교환을 위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게 느끼는 ‘일체감’이라는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나’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공동체에 대하여 중요한 메시지들을 들었다. 재무 장관은 새로운 애국심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국무총리는 공동체와 자발적인 모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시기적절한 것들이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들 가운데 삼분의 일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혼자 사는 이들이 많아졌다. 창세기에서 ‘좋지 않다’라고 말해진 바는 딱 한 번 있다. 그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함께함’이라는 조직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대교에서 우리는 기도의 집을 ‘벤 크네셋’ 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공동체의 집이라는 뜻이다. 종교는 공동체를 세우는 제도이다. 랍비로서 나는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빛진 마음이 든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이고 도움과 위로를 주고 지원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을 받는다. 공동체는 당신이 마트에서 살 수 없는 것, 국회의 결의를 통해 주어지지 않는 것들을 제공해 준다. 우정, 충성스러움, 관대함, 그리고 신뢰. 그러한 것들은 나눔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거칠어진 세상의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해줄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너무 쉽게 냉혹해지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해지는 것들은 친구처럼 친근한 확장된 개념의 가족이다. 만약 당신이 내게 공동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 곳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곳은 당신이 그 곳에 없을 때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공동체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회이다. 그곳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다.

- 조나단 섉스, 「낙관주의에서 희망으로」 중에서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 실수를 범하게 된다. 종교는 ‘믿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소속되는 것’이다. 소속된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룬다는 말이다. 공동체는 섬세하면서도 강력한 관계의 연대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누군가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들 곁에 있어야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 또한 우리 곁에 있으리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 마/음/으/호/워/는/글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나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마음을
달빛에 실어 당신에게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이 곱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아~ 문득 문득 들려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나 신나고 근사하네요

- 김용택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박시내 장영숙 윤정덕 구성실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김준우
 우순덕 구명자 권미숙 김근종 정옥영 김순복 전영웅 김정섭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박애순 안종일 정현주 오진훈 노순옥 윤미경
 윤수진 조관행 홍선희 방민 방준 조문규 진정숙 김영순 박권동
 전해리 강미선 전세종 김정민 서수진 김성한 조영순 조병무 송양진

월정헌금:

고속이 이봉배 이성범 이유선 방극숙 이정은 전영규 김경수 정두리
 조순덕 하현철 최성애 정원석 김현영 한성건 김영순

감사헌금:

김준우 장영숙 윤정덕 구성실 김윤숙 강순배 김연희 윤석산 정복순
 오정숙 전성오 박준희 이기분 고미진 손성윤 전해리 한지혜 정두리
 박병구 문복순 백묘현 김남중 오복순 박소진 전세종 김정민 김용진
 김순복 김지원 무명5

생일감사헌금: 김재흥 문영혜

녹색꿈 헌금:

정두리 김미순 박석희 홍순구 안홍숙 장원호 박성희 김성한 조영순
 문금석 김철수 김희우 전해리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연합속회	조순덕
베들레헬	노순옥	정경례		김윤수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서원금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김진경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문금석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임수연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정영선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배상순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최영혜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성령강림절기** : 교회력으로 성령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온전히 동행하며 사십시오.
2. **문화기행** : 제1남선교회가 16일부터 17일까지 진도로 문화기행을 갑니다. 교회에서 16일 아침 7시 40분에 출발합니다.
3. **수요성경공부** : 이번 주부터 3주간에 걸쳐 다니엘서를 공부합니다. 강사는 이성운 전도사입니다.
4. **환경선교대학** : 감리교 선교국이 주관하는 4주간의 교육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간 : 10월 13일 ~ 11월 3일 (매주 화요일 오후 1:30~4:30) 장소 : 감리교본부 회의실 (16층)
5. **소액대출은행** :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착한 사람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이 운동에 출자를 원하거나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인걸 장로에게 문의하십시오.
6. **수집**: 노숙인들을 위해 급식봉사를 하는 ‘소중한 사람들’에서 남성용 긴팔 옷과 신발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7. **신앙실천** : 몸이 아픈 교우들이 많습니다. 시간을 내어 찾아가고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식당 봉사 : 시온 속 (다음 주 : 시온 속)

* 설거지 봉사 : 윤종권 박권동 (다음 주 : 곽상준 최경미)

새교우 소개

서지은 (8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